

성병
관리,
이렇게
하자



사랑과 성병, 떼어 놓을 수 없나?

〈上〉

성병이란

성병을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류 병이라 불려왔다. 화류계 등에서 감염 되는 질환의 통칭인데 화류란 말은 버들을 휘어잡고 꽃을 꺾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또는 이태백의 시 “昔在長安醉花柳 五侯七貴同杯酒”에서 유래했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유녀, 창녀, 기생집 등을 가리킨다.

서양에서는 비니리얼 디지스(Veneral Diseases ; VD)라고 하는데 이는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에서 유래된 것

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얼마나 인류를 괴롭혀 왔는가. 사랑과 성병, 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가?

하긴 사랑의 행위가 없이 성병이 오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연의 인과 관계인지도 모르겠다.

1970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W. H. O)는 이러한 성적질환을 S. T. D(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육체적 접촉전염병)라 부르고 있으며 신체 어느 부위 어느 곳에서던 감염 발생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성병은 다른 전염병과는 달리 감염원이나 감염방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심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 할 것이다.

2. 성병의 추세 및 관리 현황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며 보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거의 모든 전염병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성병만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근래에는 치료제 개발을 앞지르기라도 하려는듯이 헤르페스, 페니실린내성임균, 스펙티노내성임균 등 신종 성병, 약제 내성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성병관리는 기지촌 주변의 위안부나 유흥접객업소의接客부 등에 대하여 보건소나 성병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토록 하는데 국한하였으나, 1977년 10월 31일부터는 성병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의료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켜 의료보호 1, 2차 병의원에서 무료로 비밀리에 진료토록 하였고 1982년 6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성병검진을 실시토록하

여 환자가 선택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급학교 학생, 근로자, 군인, 예비군, 접객업소종사자 등 청소년층에 대하여 순결, 성윤리관 및 성병 등에 대한 계몽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성병감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

3. 성병을 예방하려면

첫째: 부부이외의 불결한 성관계는 절대로 피한다. 성병은 감염된 자와의 성적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상대가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전염될리 없으니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둘째: 콘돔의 착용이다. 콘돔은 피임뿐 아니라 성병의 예방에도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임질을 막아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매독에까지 철통같은 수비기능은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뚫어지지 않았을 때만 제구실을 다할 수 있고 실지로 성교도중 콘돔의 파손은 흔히 일어나므로 콘돔의 2중착용 즉 속의 것은 귀두부까지만 덮고 겉에 있는 것은 풀커버로 하는 덧씌움의 방법이 권장할 만하다.

셋째: 성교후 즉시 접촉된 부위를 비누질해서 깨끗이 씻는 일이다. 섹스는 궁극적으로 「피로하지만 행복한 상태」

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곧 수면에 떨어짐이 보통이다. 그에 선행해서 조속히 육실편 달려가 성기는 물론이고 입속까지 칫솔해서 깨끗이 닦으면 매독의 위험을 최소 한도로 줄일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는 항생제나 화학살균제가 함유된 질정을 성교후 삽입하면 성병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일본학자의 보고가 있다. 물론 깨끗이 씻음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넷째 : 부부이외엔 가급적 농도 짙은 페탕(애무)은 삼가할 일이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공포의 성병 매독은 흔히 항간에서 VD 안전지대라고 믿고 있는 구강으로부터 옮겨받는 경우도 없지않다.

다섯째 : 성교전에 항생제를 미리 복용 또는 주사해두는 방법이다. 이때 주력부대인 임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와 같이 침입하는 여타 세균들 그리고 가능하면 매독균까지도 능히 박멸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그 약물이 썩스때 이들 고약한 병균들을 능히 몰아낼 수 있을만큼 미리 충분한 유혈 혈중 농도에 도달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상태가 만 72시간 지속되도록 투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법은 의학에 웬만큼 전문지식이 없고선 불가능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방법 이외에 가장 분명하고도 간단한 예방법은 성병을 앓고 있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뿐이다.

4. 성병에 감염되었을시 유의사항

가.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사먹게 되면 오히려 성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사의 진찰에 따라 치료하여야 한다.

나.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면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감추거나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받아야 한다.

다. 성병은 얼마간 치료를 하다보면 통증이나 기타 증세가 없어지게 되나 이를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고질화되게 하니 의사의 완치 판정이 있기까지는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라. 성병은 성적인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이니만큼 당신이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자도 같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마. 성병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국가 부담으로 보건소 및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비밀리에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 있으니 이상이 있으면 곧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사회부 제공)

